



왼쪽부터 같이편딩, 삼시세끼 산촌편, 리틀 포레스트.

스타 PD·파격편성 '대형예능' 귀환

김태호, 무한도전 이후 1년 만에 신작 2편 선포
나영석, 신서유기 끝내고 삼시세끼 시리즈 복귀

휴가철 막바지, 다시 시청자가 안방극장을 찾을 무렵 각 방송사가 아침 차게 준비한 '킬링 콘텐츠'를 내놨다. MBC TV와 tvN은 채널을 브랜드화시킨 주역이자 국내를 대표하는 스타 예능 PD들을 내세웠고, SBS TV는 평일 미니시리즈 방송 시간대에 예능을 넣는 파격 편성 전략을 택했다. MBC TV는 역시 김태호 PD의 귀환이 가장 큰 화제다. 국민 예능 '무한도전' 시즌 종영 후 약 1년 만에 돌아온 김 PD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참여한 신작 2편을 연이어 선보였다. 지난날 27일 방송을 시작한 토요 예능 '놀면 뭐하니?'는 김 PD 총괄 기획 아래 그의 '영혼 단짝'인 유재석이 메인 MC로 나서 관심을 끌었다. '김태호+유재석' 조합과 관찰예능 포맷은 익숙함을 주고, 릴레이 카메라를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출연진은 볼거리를

더한다. 다만 시청률은 4%(닐스코리아) 수준으로 아직 안정 궤도에 진입하지는 못했다. 일요일인 18일 선보인 '같이 편딩'은 김 PD의 사회참여적 아이디어가 더 강조된 포맷이다. 유희열, 유준상, 유인나, 노홍철이 각각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시청자의 크라우드 펀딩 참여를 통해 실행력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무한도전'의 새로운 거대 프로젝트를 보는 것 같은 기대감을 안긴다. tvN에서는 김태호 PD와 함께 양대 예능 스타 PD로 꼽히는 나영석 PD가 '신서유기'를 끝내고 '삼시세끼' 시리즈로 돌아왔다. 비지상과 드라마 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JTBC 'SKY 캐슬' 주역 엄정아, 윤세아, 그리고 영화 '기생충'으로 칸 레드카펫을 밟은 박소담을 내세운 이번 산

촌편은 '삼시세끼'의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나 PD의 마음이 잘 담겼다. '삼시세끼 산촌편'은 시청률 7%대로 쾌조의 스타트를 끊었다. 톱스타들과 함께 '변칙편성'을 전략으로 내세운 방송사도 있다. SBS TV 새 월화예능 '리틀 포레스트'가 개중 하나. SBS는 주로 예능 프로그램을 선보인 금·토요일 밤에 드라마를 편성해 '열혈사제', '의사요한' 등으로 훌륭한 재미를 봤다. 이에 포화한 월화 미니시리즈 시간대에 대형 예능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또한 번 변화를 시도했다. 출연진 역시 '뽕뽕'하다. 주로 tvN에서 나영석 PD와 호흡을 맞춘 이서진이 자연 속 육아에 도전했다. 또 '집사부일체'로 지난해 SBS연예대상을 거머쥔 이 승기, 그리고 '대세' 박나래와 '예능 뉴페이스' 정소민이 합류했다. 자연 속 힐링, 육아, 요리와 목공 등 자급자족, 관찰예능 등 최신 트렌드란 트렌드는 모조리 섞어 넣은 포맷인 만큼 첫 방송에서 6%대 시청률을 보이며 초반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다. /연합뉴스

구혜선-안재현 3년만에 '파경'

소속사 "진지한 상의 끝 서로 협의해 이혼 결정"

배우 구혜선(35)과 안재현(32)이 결혼 3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그러나 안재현과 소속사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달리 구혜선은 이혼 결정 소식이 전해진 후에도 "가정을 지키고 싶다"라고 재차 밝히는 등 심경 변화를 보여 양측이 완전히 정리하기까지는 갈등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는 18일 "많은 분의 격려와 기대에도 최근 들어 두 배우는 여러 가지 문제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렀고, 진지한 상의 끝에 서로 협의해 이혼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소속사 공식입장은 구혜선이 남편과의 불화를 직접 언급한 지 반나절 만에 나왔다. 앞서 구혜선은 이날 이른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괜태기로 변신한 남편은

이혼을 원하고 저는 가정을 지키려고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구혜선은 이 글들을 게시한 지 몇 시간 후 모두 삭제했다. 그러다가 소속사가 이혼 소식을 공식적으로 전한 직후 재차 글을 올려 "다인에게 저를 욕한 것을 보고 배신감에 이혼이야기는 오고 갔으나 아직 합의한 상황은 전혀 아니다. 저와는 상의되지 않은 보도이다.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라고 반박글을 올리며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노출했다. 구혜선과 안재현은 2015년 KBS 2TV 드라마 '블러드'에서 호흡을 맞췄으며, 작품 종영 직후 교제를 시작한 사실이 공개됐고 이듬해 5월 결혼했다. 구혜선은 2002년 CF 모델로 데뷔해 '꽃보다 남자' 등 여러 인기 드라마에 출연했다. 최근에는 영화감독, 화가, 작가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했다. /연합뉴스



안재현은 모델 출신으로 '패션왕' 등 영화와 '별에서 온 그대' 등 여러 드라마, 그리고 나영석 PD의 tvN 예능 '신서유기' 시리즈에 출연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tvN 예능 '신혼일기'를 통해 신혼 생활을 공개하는 등 애정을 드러냈지만 결국 파경을 맞았다. /연합뉴스

환자와 명의에 대한 고찰 '의사요한'

주연 호흡·목직한 주제 호평

SBS TV '의사요한'은 의학드라마로서의 여러 요소를 균형적으로 갖춘, '종합선물세트' 같은 작품이다. 놀라운 의술을 갖췄지만 내면에 아픔을 지닌 명의가 있고, 그를 따르는 제자가 있으며, 갖가지 사연으로 목직한 메시지를 전하는 환자들이 있다. 병원 내 갈등과 명의를 괴롭히는 인물도 물론 등장한다. 특히 선천성 무통각증을 앓는 명의로서 주인공인 차요한(지성 분)이 행하는 놀라운 진단과 의술은 시청자의 다양한 감각을 자극한다. 하루에도 몇백명 환자가 종합병원을 드나드는 가운데 그들과 똑같은 고통을 느낄 줄 아는 다수 의료진이지만 일상처럼, 기계처럼 의술을 행하는 현실을 생각해보면 무통각증 환자 차요한은 존재 자체로 참 아이러니하다. 차요한은 그래서 더 안락사 문제에 매달리는 듯도 보인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과 삶의 경계에 선 사람들의 고통을 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공부하고 이해하려 한다. 이렇듯 '의사요한'은 여러 에피소드를 역동적으로 다루면서도 극 전체를 관통하는 환자의 고통, 명의의 조건, 그리고 안락사라는 목직한 에피소드가 시청자에게

질문 거리를 던지는 데 그 매력에 있다. 다소 산만해 보일 수 있는 전개에 몰입력을 더하는 건 다름 아닌 배우들이다. 10여 년 전 '뉴트'에서 파릇파릇한 매력을 보여준 '레지던트' 지성은 깊어진 눈빛으로 제자들은 물론 시청자를 홀린다. 그와 호흡을 맞추는 이세영 역시 아역 시절부터 쌓은 내공으로 에피소드마다 절절한 감성을 과하지 않은 호흡으로 표현해내며 호평받는다. 물론 아쉬운 점들은 보인다. /연합뉴스

개중 원작인 일본 소설(구사카베 요의 '신의 손')의 색깔을 고스란히 담았다는 점이 특히 아쉬운 부분으로 꼽힌다. 일본 히어로그들이 대부분 인위적인 극성을 띠는 특성은 '의사요한'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최근 장르극이 선과 악의 구도가 명확하지 않고, 주인공의 무한한 능력만을 내세우지 않는 트렌드인 점을 고려하면 '을 드'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목직한 메시지를 다루는 것 자체는 좋지만,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 방향으로 고민을 강요하는 듯한 전개도 불편한 부분이 있다. /연합뉴스



오늘의 TV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E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00 모닝와이드	00 한국기행(재) 20 세계테마기행
7	50 인간극장		50 모두 다 콩파리	35 KBC 모닝 730	00 로보카 폴리 30 뽕뽕뽕 뽕뽕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수상한 장모	00 당동댕 유치원 10 두근두근 방방 45 최고다! 호기심딱지
9	30 KBS 뉴스	00 여름아 부탁해(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00 마사와 곰 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웰컴2라이프(재)	10 SBS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30 한국기행(재) 50 최고의 요리비결
11	00 다큐 공감(재) 50 한식의 마음(재)	00 너의 노래를 들려줘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 조리 맛있는 수업	20 세계테마기행(재)
12	00 KBS 뉴스12		00 12 MBC 뉴스 20 웰컴2라이프(재)	00 SBS 12뉴스 50 지식 풍조집	00 EBS 정오뉴스 10 극한직업 스페셜
1	00 문화산책 50 빛고을행복아가데미	10 트레킹노트	30 헬로키즈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00 다큐 오늘 10 최고의 요리비결
2	50 미나디Q(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0 꼬마버스 타요(재) 45 로보카 폴리(재)
3	10 전라도 매력청(재)	00 자동차부채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뽕뽕뽕 모두야 놀자		00 출동! 파자마 삼총사 30 뽕뽕뽕 뽕뽕로(재) 45 출동! 슈퍼왕스(재)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	20 모두 다 콩파리(재)	00 그곳에 가면 55 닥터 365	15 세미와 매직큐브 40 두근두근 방방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영화가 좋다(재)	00 5 MBC 뉴스 25 출발! 비디오 여행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00 EBS 뉴스 20 명탐정 피트 45 마사와 곰(재)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세상에 이런일이	00 톡!톡! 보니 하니 25 마루의 어드벤처 45 우리 몸 X파일
7	00 KBS 뉴스 7 40 우리말 겨루기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TV블로그 썬지락	00 제로니모 스티븐의 모험 30 생방송 판다
8	30 여름아 부탁해	30 글로벌24 55 옥탑방의 문제아들	55 웰컴2라이프	00 SBS 8뉴스 35 KBC 8뉴스 55 생활의 달인	00 갤럭시 프로젝트 30 아기 동물 귀여워 40 세계테마기행
9	00 KBS 뉴스 9			30 한국기행 50 위대한 유산	45 아빠 찾아삼만리
10	00 가요무대	00 너의 노래를 들려줘	05 스트레이트	00 리틀 포레스트	
11	00 오늘밤 김제동 40 저널리즘 토크쇼 J	10 안녕하세요	05 문화콘서트 난장	10 동상이몽2	55 지식의 기쁨
12	35 KBS 뉴스 45 이웃집 찰스(재)	35 비바 K리그	05 스포츠 다이어리 20 웰컴2라이프(재)	30 나이트라인	45 지식채널e 50 세계의 드라마

오늘의 운세			김도환 선생 제공 02-766-1818 www.esazu.com	8월 19일 (음력 7월 19일)
子	48년생 참고 인내하면 마지막에는 반드시 길하다. 60년생 못치면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 72년생 투자에 상응한 결실이 있겠다. 84년생 용통성이 필요하다.	午	42년생 경사가 겹치는 날이다. 54년생 고지가 눈앞에 있으니 힘을 내자. 66년생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78년생 몸을 낮추고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	
丑	49년생 안 될 일에는 미련을 두지 말라. 61년생 공돈이 생기는 운세 좋은 날이다. 73년생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85년생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는다.	未	43년생 어른 대접을 받는 날이다. 55년생 일단은 살아남아야만 후일을 도모할 수 있다. 67년생 등잔 밑이 어둡다. 79년생 허투르가치 범 무서운 줄 모른다.	
寅	50년생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62년생 팔은 안으로 굽는다. 74년생 명예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86년생 먼저 제안하여 협상을 주도하라.	申	44년생 사랑한다면 용서하라. 56년생 만사형통하니 기분 좋은 날이다. 68년생 과거는 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 80년생 야심가라면 기대할만한 날이다.	
卯	51년생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63년생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75년생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87년생 답답한 하루를 보낸다.	酉	45년생 좋은 소식을 듣겠다. 57년생 리더십을 발휘하여 존경을 받는다. 69년생 허세를 부리면 손해를 보겠다. 81년생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산이 없다.	
辰	52년생 모처럼 일신이 편안하다. 64년생 귀인을 만나서 도움을 받는다. 76년생 구슬수가 있으니 일찍 귀가하라. 88년생 무작정 인정에 끌려 다니지 말라.	戌	46년생 더 이상 아름다운 방황은 없어야 한다. 58년생 노력한 자는 기회를 얻는다. 70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대업을 이룬다. 82년생 웃으면 복이 찾아온다.	
巳	41년생 사랑한다면 일단 믿어줘라. 53년생 적절할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65년생 나의 존재감을 확인할 일이 있겠다. 77년생 지렁이도 뱀이면 꿈틀한다.	亥	47년생 이 세상에 공짜란 없다. 59년생 장고 끝에 악수를 둘 수 있다. 71년생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 못할 일이 터진다. 83년생 뜻밖의 행운이 기다린다.	